

# 공공정책21

7  
2009

기획  
특집

## 조기집행의 '빛과 그림자'



Issue

- 정부 추진 일자리 창출 제대로 되고 있나?
- 희망근로프로젝트 '약인가 독인가'

정책포커스

지방공무원의 인력자원개발 방안

자치단체발전전략

꿈과 활력이 넘치는  
Dynamic Green City  
'경북 의성'



자치단체장, 달력 제작·배포 등 금품제공 못한다

Policy

위험 예방 및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Special  
Report

- 지역개발, 이젠 시·군 지자체가 주도한다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절차는 이렇게 하자

Local Policy

'기업 SOS 돌보미'로 나선 공무원들

Issue Special

## 4대강 프로젝트

- 미리 가 본 '2011년 이후 4대강'의 모습
- 개발에 동원되는 친환경 기술과 첨단공법, 그리고 IT

Interview

“중양에 예속된 상황에선  
자치발전 어렵다”

김준배 충청남도 시군의회장협의회 회장



2009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 자상중계



# “중앙에 예측된 상황에선 자치발전 어렵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기초의원만큼은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김현소 KPA자치의정연구소 부소장·본지 편집위원

지방법(조례)을 제정해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공천제와 같은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예측돼있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김준배 대표회장에게 충청남도 시·군이 당면한 문제와 의회발전을 위한 소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Interview

### 김준배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충남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충남 기초의회를 대표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금년 상반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탄력 있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먹구름만 일던 글로벌 경제가 미소하지만 소생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깊은 앙금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우리 충남도 시군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 모두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부한한 몫사와 헌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는 상호 견제와



1943년 아산시 출생,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충청일보 충남·대전본부장, 온주신문 대표이사, 음식업 중앙회 충남지회장, 제4대 아산시의회 의원 역임

협조를 통해 합리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급격한 변화와 개발

에 따른 민관의 갈등을 완충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군 살림을 꼼꼼히 살펴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감시해 왔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회가 단합된 힘을 모아 태안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 시·군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드는 참된 기초의원으로서 지역개발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다하리라 봅니다, 계속 지켜 봐주십시오.

각 시·군의회 예산 절감에 적극 나서

■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가는 물론 국민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남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충남 시·군의회의원 의정연수.



전국시도 대표회의.



건설사업 현황 방문.

위해 의회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 글로벌 경제 악화로 침체된 국내의 실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는 예산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시군의회도 이에 적극 동참, 하반기에 예정돼있던 충남 시군 의원전원 의정연수회를 상반기에 개최하는 등, 의회관련 예산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기집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의회만 해도 경제난 고통 분담을 위해 의정 의전용차량 교체구입비 4,900만원과 의원들의 해외경비 1,2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총 6,400만여만원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구제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예정됐던 시·군 의회 합동 체육대회 등을 경비절감 이유로 무산시키는 등, 각 시·군 의회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역 특수성 최대한 살려 기업유치

■ 충남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규모가 작고 재정이 넉넉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을 살펴보면 도 단위 평균 33.9%, 시 단위 평균 40.7%, 군 단위 평균 17.8%입니다.

이중 충남 시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33.4%, 군 단위 평균은 21.7%, 시 단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7% 가량 떨어지며, 군 단위 재정자립도는 4% 정도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충남 시 단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아산시와 천안시가 50% 내외며, 보령을 비롯한 3개 시가 20% 내외로, 무려 30% 안팎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 단위도 25%의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어 심한 기복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3개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각 시·군은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남은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수도권과 남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여건을 많이 갖췄습니다. 충남만이 갖고 있는 지역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해 산업체를 유치하고, 고유문화와 전통을 발굴 관광자원화하며, 보령의 머드축제와 같은 창의적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동력이 시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치중돼있어 지역간 균형발전

에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는 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향후 지역간 균형발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 시군의회도 자체 시·군 예산운영의 감시기능을 강화, 낭비성 내지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과감히 통제하고, 임시방편이 아닌 비전 있고 경제력 있는 미래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에 협조할 것입니다.

## 전체적인 틀에서 공인으로 봐주시길

■ 1995년 민선 지방정부시대 도래 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많이 불식됐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과거 일부 의원들이 각종 사업이나 인사청탁 등 이권에 개입한 다든지, 잦은 여행성 해외연수로 인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종종 사회적 물의 또는 이슈로 떠오른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간혹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면 논할 필요가 없지만, 주민이 생각하는 윤리적 잣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태도가 선거전과 당선된 후가 다르다'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을 이해하시면 쉽게 풀릴 사항입니다.

지방의원이 의회에 들어서면 개인이 아닌 공인이며, 선거구역을 대표한다고 하나, 집행부의 정책사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는 시·군 전체적인 틀에서 방향을 지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단체라 하더라도 공익에 위배되었을 경우 일일이 대변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의원도 주민이 생각하는 다정한 이웃이자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회 의원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 끈끈한 교류로 친선과 화합 다져

■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0인 이하인 의회에 사무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의회상황은 어떻습니까?

▶ 현재 충남 시군 의회의원 총 의원수가 175명으로 정원 178에서 3명이 사망 등 기타사유로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수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계룡시가 7명으로 3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시 단위에는 의회사무국, 군 단위에는 의회사무과가 설치돼있는데, 의회기구 중대 및 축소문제는 각 시·군별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군 단



위 의원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충남 시군의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갖고 있으며, 매년 1회씩 시·군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정연수회를 개최해 시·군간 당면과제 내지는 현안사항을 상호 교환하고, 정보도 함께 나누며, 고충은 서로 토로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임사태는 즉시 천파, 지역사회발전에 응용하는 등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끈끈한 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조례위반 처벌규정 강화해야

■ 한국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 우선 의회의 권위가 시야 됩니다. 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도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처벌 규정이 미미해 조례제정의 권위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나와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렵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방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추세에 맞게 의원신분으로서의 자각과 정신개혁이 우선돼야 합니다. 의원으로서 의회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잊지 않고, 현실감각에 적합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도 있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는 기초의원만큼은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측되는 상황 하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자치를 하고 있는가'를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인에게 예측돼 있는 체제 하에서는 자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 의장님께서 가장 중요시 하는 의정철학은?

▶ 순리(順理)입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가 다 순리에 의해 행해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도 무리를 하지 않고 물 흐르듯 유연하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공공정책